

# 스트레스 1위, 엄마 ‘가족돌봄·가사노동’ 아빠 ‘사회생활’

## ‘2022 서울서베이’ 결과 발표

외벌이·맞벌이 아내 가사책임 더 커 ‘아이돌봄비 정책’ 절반 이상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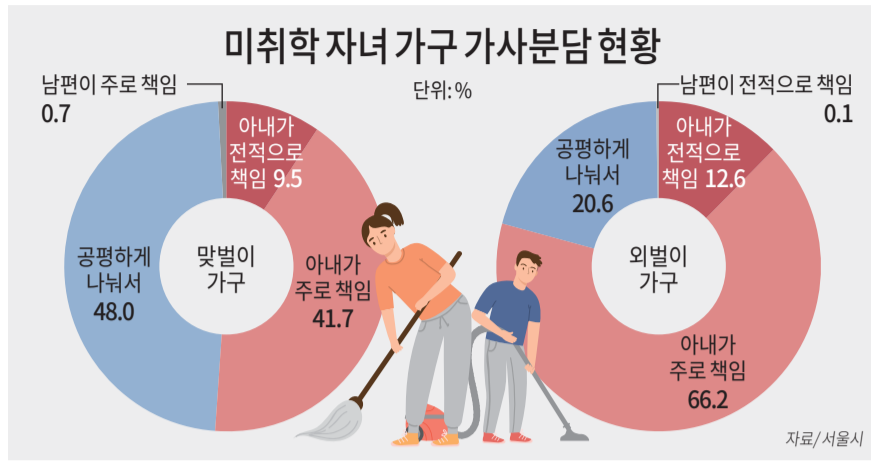
서울시내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의 엄마는 가족돌봄과 가사노동의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0~6세)가 있는 가구는 약 25만가구로, 2017년 33만5000가구와 비교해 8만5000가구(25.4%) 감소했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엄마·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 1순위는 각각 달랐다. 외벌이, 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이, 엄마는 가족돌봄·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외벌이 가구의 78.8%, 맞벌이 가구의 51.2%



는 아내가 가사를 책임졌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가운데 58.7%는 남편이 다른 자치구 혹은 타 시·도로 통근했다.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동 또는 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68.0%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통근 시간은 아내 29.5분, 남편 38.0분이었다.

엄마·아빠의 직장 여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 1순

위는 ‘어린이집·유치원’이었다. 어린이집 만족도는 ‘직장’ 4.44점, ‘국·공립’ 3.81점, ‘민간·개인·가정’ 3.80점 순이었다.

시는 본 조사에서 올 9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가칭)에 대한 찬성 여부도 물었다. 조사 결과 결혼 여부, 성별에 관계없이 절반 이상이 돌봄비 지원 정책을 지지했으며, 특히 미혼 여성의 47.3%, 결혼하지 않은 남성의

51.6%가 찬성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만 24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엄마·아빠가 느끼는 여가생활 만족도는 미혼, 무자녀 부부보다 낮았지만, 행복지수는 가장 높았고 외로움은 가장 낮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자녀·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40% 이상은 노키즈존 설치를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고 인식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거주 2만가구와 시민 5000명,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2 서울서베이’ 조사 및 분석 결과는 이달 30일부터 서울시 열린 데이터광장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전국 최초 ‘따릉이’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나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자전거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이 초과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는 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도 불린다.

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올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등록된 뒤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탄소배출권은 이달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연간 수백만원의 판매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 6월 모의평가 응시생 46만여 명... 사상 최저 기록

전년비 지원자수 1.3만 명 ↓  
졸업생 응시생 1.1만 명 ↑



지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내달 첫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가운데, 응시생이 46만여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학생 응시생은 감소했지만, 졸업생 수험생은 되레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내달 1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만3675명, 재학생 37만5375명으

로 재학생 응시자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졸업생 응시생은 8만8300명으로 전체 응시자 가운데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19.2%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수는 1만3473명이 감소했다. 재학생은 2

만5098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1625명이 증가했다.

영역별 응시자는 ▲국어 영역 46만3239명 ▲수학 영역 46만411명 ▲영어 영역 46만3027명 ▲한국사 영역 46만3675명 ▲사회탐구 영역 24만3767명 ▲과학탐구 영역 24만4993명 ▲직업탐구 영역 7405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만653명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 응시자 수가 사회탐구 응시자 수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1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 수능에 따라 이과생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과 쏠림’ 현상이 심화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 실시될 2024학년도 수능의 준비 시험

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6월 모의평가는 통합형 수능 체제로 국어·수학은 ‘공통+선택과목’으로 치러진다. 문제지는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이 포함된 합권으로 제공돼 수험생이 선택과목을 찾아서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는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이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현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성적 통지일은 6월 28일이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현진 기자 hj@

##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한다

서울시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받아 전쟁 후 도시발전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23일 열린 국제콘퍼런스는 우크라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3국의 중앙·지방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15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니콜라이엔코 의원과 이르핀시, 부차시 등 지방정부 시장단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시민 삶을 복원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개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 재건과 경제 회복을 위해 도시계획 수립,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 드론·클라우드 교육 무료 온라인 수강

4개 기업·대학 연합체 선정

드론, 클라우드, 전기자동차 등 유망 신기술 분야 직무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사업’(매치업)에 4개 기업·대학 연합체(컨소시엄)를 새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부터 진행된 매치업은 대표 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 구직·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신산업 신기술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39억여원 규모의 사업이다.

분야별 선정 연합체는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아이센스·광운대 ▲클

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한국표준협회 ▲항공·드론: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인천제능대 ▲미래자동차: 카렉스·경기과학기술대 등이다.

신규 연합체의 기업과 교육기관은 핵심직무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내년 3월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 K-MOOC)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전 과정은 무료다.

지난 2021년 선정돼 기초과정을 운영 중인 연합체 중 심화과정 운영 기관으로 3곳이 선정돼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분야별로 ▲가상·증강 현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코리야·남서울대 ▲빅데이터: 데이터스트립스·고려사이버대 ▲드론: 엘아이지넥스·동서울대 등이다. /이현진 기자

## 시흥시 중심,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 육성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 등 구축

경기도가 시흥시, 서울대학교, 바이오 산업계와 함께 시흥시를 중심으로 경기서부권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경기도는 2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 임병택 시흥시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비전 보고서’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바이오의 허브다. 바이오산업의 1등 지방정부이고 그 핵심에 시흥시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많은 것을 동원해 시흥시와 함께 최대한 지원하고 플레이어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비전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 추진전략 보고, 시흥시의 서부권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

략 보고 등이 이어졌다.

도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허브,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신규 바이오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하고,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3대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결의를 다지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임창교 기자 lckda@

##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대호 안양시장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이 ‘2023년 제5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단체장 부문 대상은 8개 분야의 수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장 1명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최 시장은 이날 ‘로컬거버넌스의 힘으로 주민 생활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안양시의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